

'명품관광도시·친환경' 중점 편성

익산시, 내년 본예산 1조3277억원...전년대비 11.0% ↑

익산시가 응포관광지 조성, 백제왕도 정채성 확립을 위한 '무왕의 도시' 조성사업 등 명품관광도시와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안은 오는 21일 익산시의회에 넘겨져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1조1964억원 대비 1313억원(11.0%)이 증가된 약 1조3277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1806억원, 기타특별회계 18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8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1806억원 규모로 올해 1조815억원 대비 약 991억원, 9.2%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 관점에서 정책타당성을 평가·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인구변

동과 관련이 있는 24개부서45개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인구영향에 대한 사업평가, 인구증가를 제고할 위한 실행전략의 적정성 등을 통해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환으로 그간 지방채 조기상환완료로 소요될 재원을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244억원, 신성장동력 사업인 △익산역 5G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 20억,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1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점마을을 공원조성

용역 2억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 △실시간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 △장기미집행 신흥공원 50억원, △노후상수도관 교체 142억원, △읍면 등 방범용 CCTV확충, △재해위험, 취약지역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관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을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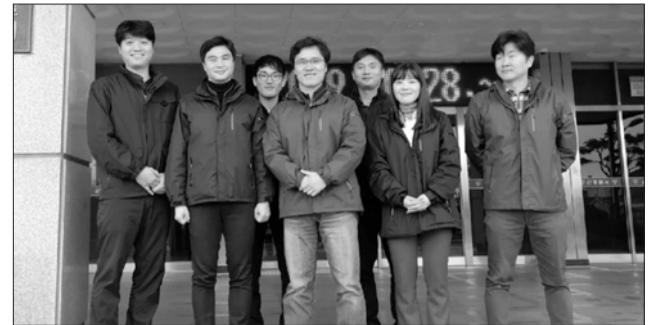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농정기술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육성 및 지원, △국가기술품클러스터 농식품 원료비축 공급센터 건립 37억원, △익산신활력 플러스사업,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 12억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70억원, △경관보전지점지불제 등 예산을 편성해 추진에 나선다.

이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500만관광 도시 조성, 백제왕도 정채성 확립 사업, △새계유산 보존사업 113억, 지역 랜드마크

크로 조성될 △응포관광지 조성 81억원,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 사업 9억원, 이 밖에도 시민 중심도시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 등 50억원, △100인 원탁회의 제도화, △시민배심원제 운영,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유천 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 및 어르신 공경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확대운영, △노인생활시설 102억,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322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전종순 기획행정국장은 "2020년 예산안은 재정사업 관리 강화 및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경비를 최소로 반영했으며, 시의 중점 투자 분야인 명품관광도시, 친환경분야에 집중 투자해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경찰서 소속 수사과 경제팀이 2019년 경제범죄 수사 활동 정성평가 대상관서에 선정됐다.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사 활동에 최선"

군산경찰서 경제팀, 경제범죄 수사 활동 평가 우수관서 선정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 소속 수사과 경제팀이 2019년 경제범죄 수사 활동 정성평가 대상관서에 선정됐다. 경제범죄 수사활동 정성평가는 전국 189개 경찰서 경제팀의 올 한해 처리한 사건의 사건처리건수, 수사과정 설명·통지, 신속처리, 기소종지역제를 평가한 각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경찰서 27개 관서 중 군산경찰서 경제팀은 전북1위

로 대상 경찰서에 포함돼 특별승진 등 영예가 주어진다.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은 "도내 다른 경찰서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군산경찰서 경제팀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자축할 만하고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에게 정성을 다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사 활동을 펼쳐나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부송4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속도

익산 동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부송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동부권 균형발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제3산단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위해 추진 중인 부송4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5월 전복도의 심의를 통과한 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한 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복개발공사와 사업 시행자 지정에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동파민원 비상대책반 운영

익산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주민들의 동파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비상대책반은 4개 반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일 최저 기온과 동파건수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노후주택 등 동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존재(현웃 등)를 이용하여 계랑기 보존을 유지하도록 감침원을 대상으로 동파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요금 고지서 뒷면에 동결기 수도 계랑기 동파 예방 요령을 게재해 6만 3천 가구에 배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역경제 극복의 새로운 동력"

군산시, 상생형 일자리 노사민정 컨퍼런스 개최

군산시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노사민정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노사민정협의회는 군산대학교 이노테크홀에서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등을 비롯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일자리 노사민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최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이후에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찾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치를 강조하는 상생형 일자리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군산형 일자리가 이러한 모델에 가장 근접해 있어 매우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군산형 일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1부 순서로 군산형 일자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9일 군산대학교 이노테크홀에서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 등을 비롯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일자리 노사민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리 상생협약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발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구체화를 위한 이행방안과 보완사항을 찾고 향후 과제를 마련해가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부 토론에서 군산대 김현철 교수(건설링 단장)를 좌장으로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노사민정 각계 주체들과 시민과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군산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토론회 등 논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민정협의회 의장인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역경제가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경쟁력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희망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국제교육도시의 날 행사 실시

군산시가 국제교육도시의 날 행사를 실시하며 명품 국제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제4회 국제교육도시의 날을 맞아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의 주최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경청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개선(Improving the Educating City by Listening)'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시의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활동 보고 및 국제교육도시의 날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평생교육관련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회원 도시 간 공동 연구와 국제 협력을 위해 지난 1994년 설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38개국 502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08년 10월에 가입, 2009년 IAEC 아시아·태평양지역 네트워크 집행도시로 4회 연속 선정됐으며, 2010년에는 IAEC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군산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 2018년 11월에는 평생교육 관련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불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 세계 3대 교육도시로 선정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소방전술훈련 현장 대응 전문가 양성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익산소방서 외근부서대원을 대상으로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통하여 현장에 강한 대원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해 매년 두 차례 상·하반기에 현장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 활동에 필요한 기본 전술의 연

마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소방서에서는 외근 소방공무원 239명에 대해 화재(공기 호흡기 장착 및 비상 호흡법, 사다리 설치), 구조(로프매듭, 공기호흡기 장착), 구급(영아심폐소생술 등) 분야별 숙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